

영암 대봉감 농가 “폭염에 감 모두 떨어졌어요” 한숨

이상 고온·강수부족에 낙과율 85% 농민, 재해 인정 현실직 지원 요구
벼 도열병 확산·가축 피해 ‘눈덩이’
“정부 선제적 재해 대응체계 구축”

“40년동안 농사일을 해왔지만 올해처럼 더위에 감들이 전부 떨어지는 건 처음 이제,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 농사에도 큰 타격이여.”

때 이른 폭염과 지속된 가뭄으로 전라남도 영암군 대봉감 농가가 초유의 낙과 피해를 입으며 농민들의 절망감이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상기후가 농업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비명이 터져나온다.

9일 오전 찾은 영암군 금정면의 대봉감 농가. 병해충 방제와 가지 치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나뭇가지에는 열매가 드물고, 바닥엔 말라비틀어진 감과 꼭지들이 널려 있었다.

“이때때면 나무마다 푸른 감이 주렁주렁해야 정상인데, 올해는 나무가 텅 비었어.”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은 감나무 아래 모여앉아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박춘홍(59)씨는 “올해 감 농사로 내년 농사 비용을 충당하려 했는데, 이젠 빚을 내야 하는 지경”이라며 “낙과가 생겨도 어느 정도는 수확이 가능한데, 이번엔 90% 가량이 떨어져버렸다”고 말했다.

김대권(67)씨도 “병해충 방제작업은



폭염과 가뭄으로 도열병에 걸린 벼 모습.

독자 제공

오전 5시 이전에 시작하지만 9시만 돼도 더위에 손을 놓게 된다”며 “하루치 일도 일주일에 걸쳐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영암군은 전남 대봉감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이 중 금정면에는 530여 농가가 집중돼 있다. 전체 600ha규모로 영암군 생산량의 74%를 담당한다.

이들 농가는 지난 봄 저온피해(봄동상해)를 견디고 결실을 기대했지만, 이후 이어진 30도 이상의 이상 고온과 강수 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낙과가 발생했다.

정철(60)씨는 “현재 고온 상황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재난에 가깝다”며 “정부가 이번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고,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영암군은 전남도를 통해 산립청에 낙과 피해를 재해로 공식 요청했으며, 이후 농약대 지원, 대출금 이자 감면 등의 실질적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폭염과 가뭄에 따른 피해는 감에 그치



9일 영암군 금정면 대봉감 과수원에서 농민이 낙과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작은사진은 떨어진 과실과 꼭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 않았다. 도내 곳곳에서 벼농사, 밭작물, 축산까지 폭염 피해가 확산 중이다.

벼농사를 짓고 있는 민형식(53)씨는 “벼 이파리가 손상되는 도열병이 예년보다 빨리 번지기 시작했고, 가뭄 탓에 벼 수확량도 줄 것 같다”며 “비가 내려야 하는 장마철인데, 눈이 말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7월 초 기준 전남에서 온열질환자 42명이 발생했고, 가축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 현재까

지 닭·오리·돼지 등 6만여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했으며, 피해액은 10억원을 훌쩍 넘긴다. 특히 농촌 지역은 인력 고령화로 인해 더위에 취약한 작업 환경이 이어지고 있어 장기적인 건강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고령 농민들은 더위에 쓰러지는 등 인명사고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단체들은 이번 피해를 단순한 자연재해로 보지 말고, 기후위기로 인한 구조

적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후변화가 일상이 된 지금, 기상청의 조기경보 시스템, 정부의 선제적 재해 대응 체계, 농작물재해보험의 실질적 보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피해 접수와 실태 조사를 병행 중이며, 관련 부처와 협조해 재해 인정 및 지원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해남서 맨홀 작업하던 60대 병원 이송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

전남 해남에서 맨홀 내부를 작업하던 60대가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9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51분께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한 도로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

가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A씨가 맨홀 내부에 있던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승우 기자

전남교육청-중국 산시성, 국제교육 맞손

5년 협력 성과 기반 재협약 공동수업·문화교류 확대 추진

전라남도 교육청이 중국 산시성교육청과의 지난 5년간 국제교육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교류범위를 확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청사에서 산시성교육청과 국제교육 교류 확대를 위한 새 협약을 맺고, 학생·교원 교류, 공동수업 개발, 문화·언어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번 협약은 2019년 체결된 양 기관 간 협약의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양 기관은 그간 추진한 교원 연수, 학생 방문, 문화체험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포럼, 이중언어교육, 디지털 기반 수업 개발 등 미래 지향적 프로젝트로 교류를 심화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리진배 산시성 교육청 부청장, 산시대학교 하오핑 부총장, 중베이대학교 양평바오 부총장 등 중국 대표단과 전남도교육청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진이 참석했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산시성과의 협력은 전남 교육의 국제화 기반을 확장하는 데



지난 8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전남-산시성교육청 국제교육 협력 협약식’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크게 기여했다”며 “학생들이 세계와 연결된 배움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리진배 부청장은 “그간의 교류는 양 지역 학생들에게 값진 경험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연례 공동사업 운영 체계를 구축해, 산시성과의 협력을 전남형 국제교육 모델로 발전시킨 뒤 타국과의 교류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바이오헬스 산업 협력 플랫폼 본격 가동

원스톱 지원 방안 모색 지역 중심 생태계 조성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지역 바이오기업들과 손잡고 의료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함께 이끌어가는 협력 플랫폼을 본격 가동한다.

9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병원 미래의료혁신센터 재개봉홀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과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개방형의료산업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병원 현장의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기술을 신속히 검토하고 실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와 유관기관, 지역 바이오기업과 함께 의료기술을 실제 병원 현장에서 시험하고 빠르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천 전략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광주시교육청, 영유아 저녁·휴일 돌봄 확대

거점형 돌봄기관 15곳 운영 맞춤·토요형 방식 병행 도입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영유아를 위한 저녁·휴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오는 12월 까지 ‘거점형 돌봄기관’ 15곳을 지정해 시범 운영한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거점형 돌봄기관’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시범사업 일환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거점으로 지

간담회에는 바이오 및 의료기기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병원-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사업책임자인 김형석 화순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간담회는 ㈜아이피온 박성용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특강, 기관 간 네트워킹 및 협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형석 연구원장은 “병원이 보유한 임상 경험과 의료 인프라를 지역 바이오기업들과 공유하고 공동 기술 검증과 적용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화순전남대병원은 병원 중심의 개방형 협력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 세션에서는 전남바이오진흥원 정현철 전략기획실장이 지역센터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전남의 산업 인프라를 소개했으며, 화순전남대병원 박라영 연구교수는 ‘병원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협업 실증 플랫폼’을 주제로 병원 기반 실증 환경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2025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에 앞서, 화순전남대병원이 주도하는 병원 중심 협력 전략을 사전 공유하고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화순전남대병원은 ‘2025 인터비즈 포럼’에서 바이오헬스 분야의 벤처기업, 특허법인, 관계 기관들과 만나 기술사업화와 공동연구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기술 실증을 주도하는 핵심 기관으로의 역할을 강조하며 혁신기술의 검증부터 실제 산업화에 이르는 협력 플랫폼 구축 계획 등을 소개했다.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은 “화순전남대병원은 진료를 넘어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함께 이끄는 바이오헬스 혁신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공동 임상연구, 스마트 임상시험 연계, AI 기반 분석, 기술 이전 및 특허 자문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기업 연계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호자 희망 시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도 이용 가능하다.

단순한 시간 연장이 아닌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예산 지원과 함께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해 각 기관에 컨설팅, 모니터링, 우수 사례 공유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지역 실정과 보호자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 정책을 통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